

## 홀몸 노인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김도현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A study on the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Do-Hyun Kim

Doctoral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University

**요약** 노인관련 복지 정책은 대상 노인 집단을 일반화하여서 보편적인 문제해결 접근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집단은 동질 집단이라기 보다는 연령, 가족상황, 경제적 여건 그리고 기타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의 복지욕구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단순하고 일괄적인 복지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다양한 노년 집단들 속에서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추세이므로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작업은 곧 노인복지의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하겠다. 해당 연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다른 노년 집단과는 달리 자칫하면 사회와 단절되어 자신만의 세계에 제한적으로 생활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나 지역 단체,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도 생활의 만족도를 높혀 성공적인 노년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목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책은 가족구조적 측면,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주제어** : 홀로된 노인,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 인구고령화, 활기찬 노인

**Abstract**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future society in the rapidly changing present, but it is said that a new social environment of sensibility and virtuality will come, and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women have entered this as the subject. This study is a literature review study on gender roles. Through the study, it was found that gender stereotypes that exist in our society allow men to enjoy a lot of vested rights just by being male, and that women have to endure pain because they are women is accepted as a matter of course. Living in the 21st century, we were able to know the reality that we could not escape the pre-modern patriarchal ideology and still worshiped the idea of preferring boys. Through this study, unlike other elderly groups,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are likely to be cut off from society and lead a limited life in their own world. However, through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loc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e goal of welfare for the elderly i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life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o that they can enjoy a successful old ag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upport measur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will be effective only when systematic and complementary in various dimensions such as family structure,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Key Words** : Adult Learner, Learning Motivation, Cyber University, Learning, Human Understanding

\*Corresponding Author : Do-Hyun Kim(hoseo7772@naver.com)

Received November 20, 2022

Accepted December 21, 2022

Revised December 12, 2022

Published December 30, 2022

## 1. 서론

1970년 이후부터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고령화 사회」의 특징 중에 두드러진 점은 홀몸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생활주기가 연장되면서,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독신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1-3]. 홀몸 노인의 수적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가장 취약한 노인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적 분석 및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이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노인관련 복지 정책은 대상 노인 집단을 일반화하여서 보편적인 문제해결 접근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집단은 동질 집단이라기 보다는 연령, 가족상황, 경제적 여건 그리고 기타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의 복지욕구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단순하고 일괄적인 복지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다양한 노인 집단들 속에서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추세이므로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작업은 곧 노인복지의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하겠다.

## 2. 본론

우리 나라 전체인구 4,279만명 중 4.7% 202만명 수준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2000년에는 7%, 2025년에는 14%로 늘어 25년만에 2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4-5]. 이 같은 고령화 속도는 고령인구 비율이 1865년에 7%에서 1백 15년만인 1980년에 14%로 늘어난 프랑스에 비해 4.6배, 스웨덴에 비해 3.4배(85년), 미국(85년)에 비해서는 2.5배가 빠르며 일본(26년)보다도 1년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6-7]. 이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는 고령화 속도가 비교적 완만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급속한 추세는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정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급격하고도

지속적인 고령화추세는 평균수명의 증가(70세)와 저하되는 출산율(1.87%)로 인한 낮은 인구증가율(0.97%)에 기인하며[8], 전체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의 피라미드형이 30년 후에는 선진국형의 항아리형으로 변하게 된다.

노년인구의 성비를 관찰해 보면 여성노인 100 명에 대하여 남성 노인은 60.7명으로 여성노인의 과다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노인의 인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성비가 65세-69세에는 인구의 74.2, 70세-74세에는 63.4, 75세-79세에는 50.5, 그리고 80세이상은 33.3으로 연령이 높아갈수록 성비가 낮아져 여성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8-10].

노인들의 가족구조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3세대 가족은 감소하고 노인단독가구나 홀로사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 하였다. 1975년에 노인단독가구는 전체가구의 7.0%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23.8%, 1996년에는 53.0%를 차지하여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 한편 홀로사는 노인의 비율은 1995년에 12.5%, 1996년 12.9%, 1997년 12.5%, 1998년에 12.7%로 노인 100만명 중 12만명이 홀로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의 가족구조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홀로 사는 노인은 3.3%인데 비하여 여성노인은 13.2%가 홀로사는 것으로 나타났다[11].

홀로사는 노인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주민등록상으로 기재된 노인은 약 1만 7천여명으로 13%에 달하나, 실질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은 9천5백여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2%를 차지하였다[12].

### 2.1 가족구조의 특성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화현상으로 부모와 성인자녀간의 별거현상은 더욱 증가하여 핵가족화되었다. 따라서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 규범이 붕괴되었다. 가족구조적으로도 노부모를 봉양하고 「효」를 통한 부양의식의 당위성은 차츰 사라지면서, 노인은 가족내에서 종속적인 위치로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기혼여성의 취업율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에 가족내 노인부양자 역할은 담당하던 주부들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과거에는 다세대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여, 부양자 역할을 다른 구성원들과 나눌 수 있었지만, 산업화이후의 부부중심의 가족구조하에는 주부 1 인이 부양자역할을

도맡아 하기 힘들어지면서 노인부양문제가 가족의 범주를 벗어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구조나 자녀와의 동거여부와 같은 외형적 환경과는 무관하게 노인의 고독감이나 소외감은 자녀와의 절대적인 접촉양보다는 접촉의 질적 수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12-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친밀도와 정서적 유대감은 노년기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다. 가족공동체의 중심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여전히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가족과의 친밀감이나 정서적 유대감은 자녀와의 동거여부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자녀와의 접촉적 교류 정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맡아 오던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단절되고 가족내의 역할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가족구조적 특성은 노년층의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 환경으로 남게 된다.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실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의 단절까지 연결되므로 전반적인 상실감과 소외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와같은 상실감과 소외감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자녀들과의 동거시에는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에게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더욱 힘든 경험이 된다.

## 2.2 경제적 특성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족구성원들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40여년간 인구의 노령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속에서 가치관의 변화도 상당히 심각하여서 가족 중심적 노인부양이라는 부양의식도 사회적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선가정후 사회」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 특히 적극적인 사회 부양체계가 미흡함 속에서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부양의존도 여의치 않으므로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전국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바로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65%는 경제적 자립능력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집단의 경제적 자립도가 낮게 나타나서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60세이상 노년층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약 48%, 여성의 경우 약 24%에 머무른다[13]. 게다가 취업한 노인들의 상당수가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직, 사무직, 행정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노인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낮은 경제적 자립도는 특히 여성노인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들의 부양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노인의 70%, 남성노인의 50%가 여전히 자녀 의존적 부양의식을 나타내고 있다[14-15]. 즉 자녀들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부양의식은 노인의 자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으로 당사자인 노인 본인들만이 혼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특히 사회제도적으로 연금제도가나 혹은 장기적 복지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홀로 사는 노인의 상당수가 여성노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상대적으로 배우자보다 젊은 연령에 결혼하면서 결국 혼자 살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현재 여성 노인은 배우자보다 평균 12년을 더 오래 살면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문제점 중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왔고, 취업하였다 할지라도 2차적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의료혜택이나 연금혜택 등에서 배제되어 왔다. 게다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재교육도 힘들다.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숫적으로 우세하지만, 사회적, 법적인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남음으로써 노년기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특히 노년기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하여 홀로 남게 되는 여성노인들 중에 개인적인 노후보장을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준비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하여서는 단순히 빈곤구제가 아닌 복지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 2.3 건강 및 신체적 특성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약 75세로 같은 해에 태어난 남성보다 약 9년을 더 살게 되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보다 3세 정도가 빠르므로 결국 약 12년은 혼자 살게 된다. 게다가 노인 중기 이후의 여성노인의 비율은 70%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 홀로 생활하게 된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였다고 하여서, 이들이 과거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말할 수 없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노인들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지적하듯이, 급성, 만성 성인병이나 각종 신체적 장애를 지닌 체, 주변의 도움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이다. 20대와 비교해볼 때, 60대 이후는 3배나 높은 발병율을 보이며, 특히 정신적 장애는 3~6배나 높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젊은 시절 과중한 가사노동,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건강을 돌보지 못한 여성노인들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시력이나 청력의 손실, 골다공증, 치매 등으로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노인, 특히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정책은 매우 원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여성노인은 의료보험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될 위험도 높다.

## 3. 결론

### 3.1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욕구 및 지원방안

#### 3.1.1 가족환경적 욕구

상당수 노인들은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은 독립적이기를 원한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노후 부양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노인단독세대의 증가는 생활의 편안함을 요구하는 노인층과 자녀세대들의 욕구가 일치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단독세대 증가는 배우자가 사별할 경우에는 결국 홀로 노인가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홀로 사는 노인가구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독거가구를 이루게 될 경우도 많으므로, 비록 혼자 생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족의존적 부양양식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년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한 사회교육 실시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새로운 경로 가치관 형성 및 이해가 필요하다. 노부모부양에 대한 면세 혜택의 범위 확대해야 한다. 노인 스스로도 능동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프로그램 참여해야 한다. 홀로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 프로그램(임대 주택 및 노인 주택 개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1.2 신체적 욕구

노년기의 건강문제는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를 안겨 준다. 특히 노인 스스로가 원활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므로 도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상당수가 여성노인이고, 배우자나 가족들과 동거하는 노인들보다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안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들은 만성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회적이거나 단발적인 도움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종 의료적인 혜택과 더불어 지속적인 생활상의 지원을 강구해야만 한다.

노인 건강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의료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상생활을 도와 줄 수 있는 가정 봉사원제도 정착하고, 재가 노인에게 용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간호사제도의 실질적 도입 노인병 전문 병원의 확대 및 정부차원의 지원 혜택 증대해야 한다. 임종간호시설의 체계적인 도입(홀로 노인의 임종 문제)이 시급하다.

#### 3.1.3 경제적 욕구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홀로 사는 노인들이 상당수가 여성노인이라는 점이다. 여성 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므로 홀로 사는 노인들(특히 여성노인들)의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소득보장장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홀로 사는 노인들 중에 과거 직업을 가졌던 남성노인들이나 일부 여성노

인들도 높은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난 40-50년간의 노동시장의 구조를 돌이켜 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가졌던 노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지금의 여성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거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연금혜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적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령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혹 실질적인 생계의 보호수준은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동시에 취업의사가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조직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여 노년기에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에 외부조건과 더불어 부양의 질적 조건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노인 취업을 위한 인력은행의 활성화 및 재교육 사업의 실질적 확대 해야 한다. 정년제에 대한 조정 및 연금수령 방법에 대한 개선해야 할 것이다.

### 3.1.4 사회적 욕구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하여 생활하여 온 노년층은 자녀들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인 역할도 감소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갖게 된다.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도 최소한의 관계로 제한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단절된 속에서 홀로 노인들이 갖는 사회적 욕구는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 발산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가 일어 난다. 즉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다. 따라서 사회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대부분의 홀로 노인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행동반경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다. 또한 건강한 노인의 경우에도 적당한 여가활동 장소나 비용에 대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들의 무료하고 의미없는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각종 여가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및 시행이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노인층의 사회적 욕구를 채워 나갈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여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홀로 노인을 위한 양로원이나 요양원 증설한다. 재가 복지서비스를 확대한

다. 건강한 홀로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유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기존의 노인정 혹은 경로당에 대한 실용적인 용도 지원이 필요하다.

해당 연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다른 노년 집단과는 달리 자칫하면 사회와 단절되어 자신만의 세계에 제한적으로 생활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나 지역 단체,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도 생활의 만족도를 높혀 성공적인 노년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목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책은 가족구조적 측면,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REFERENCES

- [1] A. Giddens & P. W. Sutton (2017). *Sociology 8<sup>th</sup> Edition*. Seoul : EUL-YU.
- [2] J. G. Noh & H. S. Kang. (2021). Reconceptualization of Self-Directed Learning based on the Perspective of Narrative Self.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9(3), 77-103. DOI : 10.25051/jner090304.
- [3] N. R. Bae. (2018).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Direction of Social Work Field Practicum - Focused on Cyber University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2), 197-211. DOI : 10.5762/KAIS.2018.19.12.197
- [4] N. R. Bae.(2019). A Study on the Motivating Factors Affecting the Middle-Aged People in Choosing Major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 96-102. DOI : 10.5762/KAIS.2019.20.1.96
- [5] N. R. Bae. (2020). A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Motives of Higher-Educated Adult Learn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182-191. DOI : 10.5762/KAIS.2020.21.12.182
- [6] J. H. Kwon. (2013). An Exploratory Case Study on Learner Support System for Adult Students in Higher Education:focused on the case of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in the U.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9(4), 123-148.

- [7] H. J. Paek. (2020). A Study on 'scholé' for Aged Society.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10(2), 1-30. DOI : 10.26734/JFE.2020.10.02.01
- [8] S. K. Han.(2010). A Study on Third Agers Who Reregister University for Erudition. *The Journal of SEC*, 2(1), 1-12.
- [9] S. H. Lee. (2017). A Case Study on Mature 'Women' Learners' Undergraduate Education Experiences at 4-year Universitie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3(4), 25-49. DOI : 10.26857/JLLS.2017.11.13.4.25
- [10] J. H. Lee. (2017). A Study on the spirit to learn from Ju Ja in the Poetry of Toegye. *Toegye Studies Papers*, 29, 121-140. DOI : 10.31781/toegye.2017..29.005.
- [11] H. S. Choi & J. S. Han. (2010). A Study on the Multiculturalism as the Erudition Approaches. *The Journal of SEC*, 2(2), 47-59.
- [12] H. S. Choi. (2010). The Recommendations of Lifelong Learning City As ICON for the Space of Erudition, *The Journal of SEC*, 2(1), 27-38.
- [13] S. K. Kim. (2018). Demographic cliff, Aged society, Reactive approach, Proactive approach, Lifelong erudition.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8(3), 45-62.
- [14] K. S. Lee. (2006). Framing Analysis of Domestic Violence Reporting..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0(1), 211-248.
- [15] I. K. Kim, Y. H. Shim & S. M. Park. (1991). A study on the actual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of domestic violence. *Crimi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1991(1), 11-221.

김도현(Do-Hyun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교육학사)
- 1999년 2월 :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22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수료)
- 2014년 9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례관리, 사회복지실천
- E-Mail : hoseo7772@naver.com